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21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불단



▶ 한줄 요약
백흥암 극락전에는 1968년에 보물로 지정된 목조 불단이 있다. 한국산사 불단의 백미다.

길상으로 충만한 불가사의한 초현실 세계

백흥암 불단, 한국산사 불단의 백미

백흥암은 팔공산에 깃든 비구니 도량이다. 도량은 청정하며 삼엄하다. 부처님 오신날과 백중날(음력 7월 보름), 1년에 두 차례만 대중에게 산문을 개방한다. 폐쇄성과 삼엄함은 수행 사찰이 지닌 엄격함의 면모다. 극락전은 청정도량 백흥암의 중심 불전이다. 대세지보살-아미타불-관세음보살의 아미타삼존을 모셨다. 1643년에 중수한 조선 중기 건물이다. 그곳에 일찍부터 나라의 보물로 지정한 목조 불단이 있다. 법당인 극락전보다 18년이나 앞서 1968년에 보물로 지정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것은 백흥암 극락전 불단의 아름다움을 호소력 있게 대변한다. 한국산사 불단의 백미로 손꼽는 데 망설임이 없다.

불단은 불상을 모신 단이다. 불단은 한국산사에서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독특한 법당장엄의 한 장르다. 조선 유교사회의 배향 의례와 불상 봉안 형식이 접목됐다. 그리하여 불단이라는 세계 불교미술 장르에서 유례가 없는 한국산사 고유의 법당 장엄 양식을 정착시켰다. 불단은 괘불과 함께 조선시대 불교미술이 성취한 고귀한 성보다.

한국산사 불단은 장엄 양식 및 지역성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경상지역 양식, 둘째는 호남호서의 서남해안지역 양식, 셋째는 기하적 추상 양식이다. 경상지역의 불단장엄은 한국산사 불단 장엄의 정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형과 근본원리에 충실하다. 대단히 고전적이며 조형에 근엄한 분위기가 흐른다. 꽃과 용, 수생생물의 연지(蓮池), 기린, 봉황, 공양비천, 주악비천, 인비인 등 장엄 소재도 다채롭다. 조형에 진채 채색을 입혀 보다 신비롭고 초현실적이며 이상적이다. 통도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직지사 대웅전, 파계사 원통전, 관룡사 대웅전, 백흥암 극락전의 불단 등은 그러한 고전주의 불단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에 비해 서남해안지역의 불단장엄은 대체로 단순하다. 불단 장식의 중심 소재도 용과 꽃으로 단출하다. 대신 화면엔 익살과 해학이 흐른다.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이며 낭만적이다.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순천 정혜사 대웅전, 익산 숭림사 보광전, 나주 다보사 명부전,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의 불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정혜사 대웅전 불단의 용은 머리에 꽃을 꽂고 파안대소하는 파격을 보여준다. 두 지역의 불단장엄 양식을 서양미술에 비하자면 경상지역은 고전주의에 기반한 기념비적 바로크양식에, 서남해안지역은 낭만주의 양식에 대비할 수 있다. 불단에 원과 사각형, 십자형 등 기하학적 도형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셋째 양식은 추상주의 경향에 가깝다.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부여 무량사 극락전, 구례 화엄사 대웅전 등 중부내륙지역의 대형불단이 대체로 기하적 추상주의 양식을 띈다.

한국산사 불단의 진면목을 지닌 백흥암 극락전 불단은 크기에서 소박하다. 가로 길이는 413cm이고, 측면 폭은 185cm, 높이는 상대에 얹은 보탁까지 134cm에 이르는 아담한 크기다. 백흥암 불단은 전형적인 3단 구조다. 하대-중대-상대로 구성했다. 불단 중심부인 중대는 다시 3단으로 구획하고 그 위에 천판을 올려 의식단으로 활용한다. 상대에는 보탁을 배치하여 아미타삼존께 차와 꽃을 상시적으로 헌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불단의 모든 조각은 투조로 새겼다. 투조 조형 안쪽에 가림막 청판을 덧대 뒀다.


백흥암 극락전 불단과 아미타삼존.


백흥암 극락전 불단 향좌측(좌)과 향우측 측면(우)

경상지역 불단은 고전주의 경향
서남해안지역은 낭만주의 경향성
좌우측면은 서수, 인비인의 세계
불단 불가사의세계 아미타불 화현


백흥암 극락전 불단 정면 중대부분 세부.

백흥암 극락전 불단 좌우 측면에 조형한 인비인 형상들.

기단의 용면은 화마에 대한 벽사

기단부인 하대는 용의 세계다. 기단 높이는 약 20cm이다. 정면부 기단은 5칸, 좌우 측면은 2칸씩 족대로 나눴다. 각 칸은 물결 형상의 테두리를 지닌 독립된 안상(眼象)의 틀을 갖췄다. 안상은 성스러운 아치형 틀을 말한다. 기단엔 삼면에 걸쳐 총 9칸의 안상을 마련했다. 좌우대칭의 구도로 칸마다 용을 조영했다. 기단에 새긴 용은 두 형상이다. 하나는 용을 정면에서 바라본 용의 정면 얼굴, 곧 용면(龍面)이다. 다른 하나는 측면에서 본 용틀임하는 용이다. 기단의 정면 중앙 3칸엔 용틀임하는 용을, 그 외 6칸엔 용면을 조각했다. 왜 용 모습을 다르게 조각하였을까? 용 형상에 따라 상징성이 다르다. 찬찬히 용 조각을 살펴보면 중앙 3칸의 용틀임하는 용은 붉은 여의보주를 움켜쥘 찰나이거나 입에 물고 있다. 정중앙의 용만 입에 물었다. 여의보주를 쟁취하는 순간, 용은 자유자재의 무한한 변신능력을 갖는다. 신출귀몰의 경지에 이른다. 그때 여의보주는 깨달음과 상통하는 고차원의 상징성을 갖는다. 용이 왕을 상징하고, 부처를 상징하는 내밀한 코드는 여의보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에 비해 용면의 용은 여의보주 대신 연꽃 넝쿨이나 모란 꽃가지를 입에 물고 있다. 정면과 좌우 측면 세 면에 한 쌍씩 조영한 용면은 대위법적이다. 한 용이 연꽃 봉우리를 물고 있다면, 다른 용은 모란 꽃가지를 물고 있다. '입에 물고 있다' 고 표현하였지만 보다 엄격하게는 '용의 입에서 연꽃이 피어 나온다' 고 하여야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때때로 용이 물고기를 물고 있는 조형도 만난다. 왜 용은 입에 연꽃 넝쿨을 물고 있고, 물고기를 물고 있는 것일까? 연꽃과 물고기는 용의 본질을 환기시켜주는 보조 장치다. 연꽃과 물고기는 용의 본질이 물 에너지임을 강조하는 보조관념들이다. 이때의 용면은 마로부터 청정법계를 수호하는 벽사가 된다. 바로 화마의 정신을 살(殺)하는 해중인(海中人)으로 승화된다. 통도사 대광명전 평방에 새긴 묵서 '하늘의 물을 내뿜어 불의 정신을 없애는' 바닷속 사람이 곧 용이다. 용은 수신(水神)이고, 우주에 충만한 물 에너지의 의인화다.

중대 27칸 서수와 인비인의 세계

불단의 중심부인 중대는 3단으로 층층이 나눴다. 각 단마다 정면은 5칸씩, 좌우측면은 2칸씩 마름동자를 세워 분할했다. 정면의 중대는 3×5=15칸, 좌우측면의 중대는 3×2=6칸씩 구획했다. 중대에 총 27칸의 화면을 만든 것이다. 중대 27칸의 화면은 길상으로 충만한 서수의 세계이고, 불가사의한 초현실적 신화의 세계다. 정면의 중대 15칸은 길상의 신령함과 생명에너지로 충만하다. 전설 속 네 가지 신령한 서수인 사령(四靈)-용, 봉황, 기린, 거북은 물론이고, 선학, 여섯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도 등장하고 물고기, 게, 개구리, 물총새 등의 수중 및 물가 생물도 표현했다. 찬찬히 살펴보면 정면의 중대는 좌우대칭으로 질서정연하며 규칙성에 따라 조형을 편성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제일 아래 1단은 땅에서 네 발로 살아가는 서수들의 집합이다. 향좌측부터 '코끼리-기린 기(수컷)-사자-기린 린(암컷)-해치' 의 구도로 배치했다. '기린' 의 '기' 는 수컷이고, '린' 은 암컷이다. 수컷은 뿔이 없고, 암컷은 뿔이 하나 있다고 전해진다. 불단 조형에서도 암컷의 '린' 에는 외뿔이 선명해서 눈길을 끈다. 1단의 서수 조형은 모두 활짝 핀 모란꽃 속에서 나툰다. 중대의 2단은 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중생들의 세계를 펼쳤다. '어변성룡-동자, 황룡, 물총새, 개구리-동자, 황룡, 물고기-동자, 황룡-물고기' 의 순서로 배열했다. 2단은 연지의 연꽃 속에 뭇 생명을 깃들게 했다. 연꽃과 동자, 어변성룡의 표현들에선 득남과 입신출세를 염원하는 현세구복 발원을 읽을 수 있다. 중대의 3단은 날것들의 세계다. 향좌측부터 '공작-봉황 황-선학-봉황 봉-공명조' 의 차례로 조영했다. 모란을 비롯해서 가지가지 꽃과 함께 장엄했다. 봉황도 1단의 기린처럼 수컷 '봉' 과 암컷 '황' 을 따로 조각하여 대칭적으로 배치하는 규칙성을 보여준다. 정면의 중대 조형에선 길상과 상서의 서수 출현을 시종일관 견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백흥암 극락전 불단 조형의 압권은 좌우측면 중대에 조각한 조형들이다. 〈산해경〉이나 〈삼재도회〉, 그리고 〈대지도론〉 등의 불교경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가릉빈가, 나찰, 사람 얼굴 가진 사람 아닌 신인인 인비인(人非人) 등 초현실적 세계를 펼쳐뒀다. 불가사의한 하늘새, 나찰, 인비인들이 집결한다. 인비인은 좌우측면에서 모두 여섯 장면 나온다. 물고기 몸에 사람 얼굴을 한 인어 형상의 인두어신 셋, 가릉빈가, 사람 얼굴 가진 거북, 나찰 등 여섯이다. 그중 3명의 인비인은 아미타삼존께 공양 예경 올리는 공양 인비인이다. 날개 가진 가릉빈가는 접시에 진귀한 과일을 담아 가고, 인어와 등에 귀갑을 두른 나찰은 붉은 보주를 두 손에 받쳐 들었다. 신인들의 공양 장면은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서도 나타난다. 일본 대덕사 소장 수월관음도 등에서도 신인들이 보주, 향목, 산호 등의 진귀한 물품을 공양 올리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다. 백흥암에서 멀지 않은 경산 환성사 대웅전 불단에서도 나찰이 보주 공양 올리는 장면이 포착된다.

중대의 모든 조형은 율동적인 넝쿨과 활짝 핀 다채로운 꽃, 구름 등과 함께 양감 도드라지게 깊게 새겼다. 조형 위에 조형을 능수능란하게 층층이 새겨 입체감이 뚜렷하고, 박진감과 생동감을 생생하게 살려냈다. 구성과 구도경영, 섬세하고 치밀한 조각 표현력, 명암과 채도 대비의 안목 등 어느 하나 부족한 데가 없다. 추상과 초현실의 세계를 구상으로 실감나게 구현한 목조각 장인의 전지적 통찰은 입지전적 경지다.

왜 이런 불가사의한 장엄이 현현할 수 있을까? 〈불설아미타경〉의 제4 천인공양분(天人供養分)과 제5 금수연법분(禽樹演法分)에 그 대목이 나온다. "극락정토에는 항상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가지 빛깔을 가진 새들이 있다. 백학새, 공작새,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가, 공명조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맑은 소리로 노래하느니라. 그 소리는 칠보리분과 팔정도를 설하는 법음이니라. 극락정토의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느니라. 이러한 장면들은 법음을 전하기 위해 아미타불께서 화현하신 것이다." 이를 통해 백흥암 중대의 불가사의한 세계는 만유의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한 아미타불의 공덕장엄임을 이해할 수 있다. 백흥암 불단은 아미타여래의 법음을 시청각의 생생한 관상으로 전하는 입체 경전의 걸작이다.

〈사진작가〉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